노무현 이 만난책

노무현을 만난 책

생전에 읽었던, 그리고 미처 못 읽었던 서적…'盧 홈페이지'에 소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책을 좋아하고 또 나누기를 즐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직설적 화법이나 논리정연한 화술은 때로 책에서 왔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서거 직전까지도 직접 책을 쓰기 위해 집필중이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읽었던 책, 그리고 읽고자 했던 책들이 노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 '노무현 사람사는 세상'(www.knowhow.or.kr)에 올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홈페이지 관리자에 따르면 서거 1주일 전에도 클린턴 집권 초기 개혁을 한국에 소개한 책 등 여러 권의 책과 자료를 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도시 관련서 탐독

봉하마을 귀향 후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애정을 쏟았던 일은 봉하마을 생태마을 만들기. 생태마을 조성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와 관련한 책을 찾아 읽곤 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생태도시를 소개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1992년 나라사랑 펴냄)와 쿠바 아바나의 사례를 분석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2004년 들녘)은 곁에 두고 읽은 책으로 노 전대통령은 이 두 곳을 봉하마을 생태도시 조성의 모델로 삼고 자주 참조했던 것 같다.

역사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지난해 겨울에 읽은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2006년 지식의 날개)은 역사와 리더십에 대한 관심으로 고른 책이다. '변혁의 정치 리더십 연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원시 아프리카 부족장과 중세유럽의 절대군주, 미국의 여러 대통령 사례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리더의 임무와 자세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내온 '후불제 민주주의'(2009년 돌베개)도 관심 있게 읽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유전장관의 특유의 시각으로 재조명한 이 책은 저자와의 개인적 인연이 각별한 만큼 소중하게 간직하고 읽었다.

재임시절 '비전 2030'을 제시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유엔 미래포럼이 발간하는 '유엔미래보고서'도 그런 이유에서 찾아 읽었다.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안드림'(2004년 민음사)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2008년 현대경제연구원)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가장 가까이 두고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다.

이 책들은 대통령 퇴임 후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권했던 책이기도 하다.

지난 겨울 노 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국가의 역할'이었다. '국가는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노 전 대통령은 관련 서적을 주문하여 탐독했다. 그중 하나가 장하준 교수의 '국가의 역할'(2006년 부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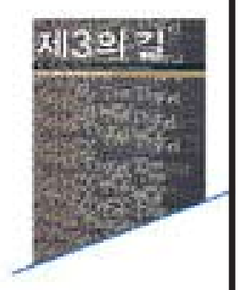
우리 사회 미래 모습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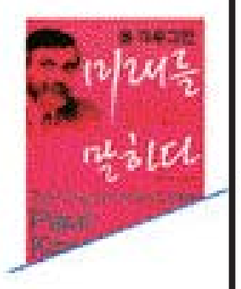
또 보수, 진보에 대한 관심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케인즈를 대체하여 경제학을 지배하게 된 근본배경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는데 '제3의 길'(2001년 생각의나무)을 시작으로 '노동의 미래'(2002년 을유문화사), '이제 당신 차례요, Mr. 브라운'(2007년 인간사랑) 등을 순서대로 다시 읽었다.

노 전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에 의해 선택된 책도 있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은 사람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에 대해 궁금해 했는데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읽고자 했던 책이 '생각의 오류'(2006년 열음사)다. 이외에도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예리하고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2004년 에코의서재)도 추천됐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서거 전까지 회고록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고록 원고에는 '여보, 나 좀 도와줘'(새터 펴냄) 출간 이후인 1994년부터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즐거운 예술로의 초대

조선대 김익모 교수 서울전

2~9일까지 갤러리 라이트

관화와 회화의 표현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김익모(조선대 미대 교수)씨가 오는 3~9일까지 서울시 인사동 갤러리 라이트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즐거운 풍경'을 주제로 동명의 연작과 드로잉 작품인 '무제' 연작을 각각 선보인다.

김씨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소재들을 추상 언어로 조합, 묘한 울림과 흥겨운 느낌을 주는 추상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그의 작품 속 아이스크림, 하트, 풍선, 포도, 돼지꼬리, 빗물 등은 서로 엉켜 있어 따뜻한 느낌을 준다.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는 듯 색이 조화를 이루고, 풍선과 돼지꼬리는 장난스럽게 표현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자신만의 추상으로 재해석한 '신몽유도원도' 등이 눈길을 끈다.

수묵담채로 그린 산수화 속 풍경과 하늘 등을 물감의 흘러내림으로 표현한 이색 작품이다. 원작에서 풍기는 여백의 미와 에너지 넘치는 산자락을 형식과 기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해석했다.

미술평론가 김영호씨(중앙대 교수)는 "강렬한 색채 대비와 거친 붓터치, 뿌리고 긁어내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기호들은 전통적 관화의 형식과 규범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의 예술을 지켜 줄 미학적 표준을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한 김씨는 '고찌국제판화트리엔날레(일본)' '한국미술을 움직이는 힘 120인'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광주시전 등의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지냈다.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즐거운 풍경'

한국화단 이끌 예비 작가들의 '붓질'

조선대 '한국화 창작실기' 전

미래 한국화단을 이끌 예비작가들의 톡톡 튀는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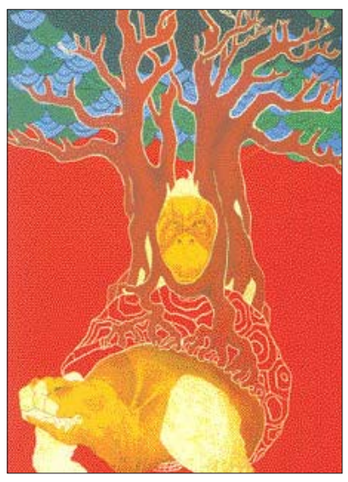
조선대미술관은 오는 5일까지 조선대 미술대학 한국화 전공(지도 교수 양계남) 학생들의 작품을 모은 '한국화 창작실기'전을 갖는다.

전시에는 강민우, 김나연, 김빛나, 김설화, 문나희, 박선미, 백범용, 송영학, 이은민, 이재호, 이혜리, 정혜진씨 등이 참여했다.

서양화의 다양한 색채와 실험 정신이 반영된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한국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박선미씨는 동굴 벽화처럼 색이 바랜 인물을 어렴풋하게 표현한 '유혹'을, 강민우씨는 사각 도형으로 몸이 분화되는 남성을 형상화한 '무제'를 각각 선보인다. 문의 062-230-7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송영학 작 '애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연기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13일 개막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연기됐던 2009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GYMF·음악감독 남유진)의 일정이 오는 13~14일로 확정됐다.

또 당초 초대가수였던 슈퍼주니어는 일정 변경에 따라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없고, 4인조 인기 그룹인 2AM·샤이니 등이 신나는 노래와 춤을 선사한다.

GYMF 사무국은 지난달 31일 "지난 29~30일 광주시청 문화광장 등지에서 열 계획이었던 GYMF를 사회적 추모 분위기에 따라 연기했었는데, 국민장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이번 GYMF는 유·스퀘어 야외무대서 열리는 전야제(13일)를 시작으로 '1318 뮤직배틀' 등 학업에 지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노래 공연이 마련된다.

GYMF는 청소년 음악 인재 양성과 국내 대중음악 발전을 모토로 진행되는 행사다.

메인 행사인 창작곡 경연대회와 1318 뮤직배틀에는 ▲미르(광주고) ▲유오디아(동명고) ▲나 잘난 밴드(나 잘난 학교) ▲달토끼(중학생 연합밴드) ▲힙합팀 템포 등이다.

이들 팀은 전야제 무대인 '1318 뮤직배틀'에 출연, 전국에서 선발된 5팀과 경연을 벌인다. 수상팀은 행사 주관 단체인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후원으로 밴드 연습실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음악활동 지원도 받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